

# 董越과 龔用卿의 比較를 통해 본 中國 使臣의 朝鮮 認識\*

尹載煥\*\*

|| 차례 ||

- I. 序論
- II. 中國 記錄 속의 董越과 龔用卿
- III.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본 董越과 龔用卿
- IV. 朝鮮認識·朝鮮觀의 層次
- V. 정리하면서

##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왕조실록』 속에 묘사되어 있는 동월과 공용경의 비교를 통해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조선 인식의 간극과 그 간극이 지니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더 넓게는 이를 통해 당대 명나라 지식인들의 조선 인식 양상과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객관화·상대화된 조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월과 공용경은 朝鮮을 찾았던 명나라의 使臣으로, 한림원 소속의 문인·관료였다는 점과 귀국 후 조선 사행에 관한 저술을 남겼으며, 조선을 예의와 문화의 나라로 칭양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 이들의 사행 과정과 이들이 남긴 사행 기록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조선 인식 역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조선 인식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조선왕조실록』 속에 기록되어 있는 동월과 공용경은 같으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 이 연구는 2013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13).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동월보다 공용경의 평가에서 서술의 진폭이 훨씬 더 크다. 이 차이점을 당대 중국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조선 인식의 차이라거나 조선에 대한 평가의 相異함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 차이는 이들 개인의 조선 인식에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간극에 대한 파악은 당대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조선 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당대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조선 인식을 살펴보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시도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동월, 공용경, 『조선부』, 『사조선록』, 조선, 명나라, 중국사신, 조선 인식

## I. 序論

董越과 龔用卿은 朝鮮을 찾았던 明나라의 使臣이었다. 동월은 성종 19년(1488) 右春坊右庶子 兼 翰林侍講의 지위에 있으면서 頒勅諭使의 소임을 위해, 공용경은 중종 32년(1537) 翰林院修撰의 지위에 있으면서 頒皇太子誕生詔使의 소임을 위해 각각 조선을 찾았다. 동월은 弘治 元年(朝鮮 成宗 19년) 윤정월 11일 혹은 19일 북경을 출발하여 2월 25일 압록강을 건너 3월 13일 漢陽의 慕華館에서 詔書를 頒布한 뒤 그달 18일 전별연을 갖고 4월 초순경 압록강을 건너 5월 경 북경에 돌아갔다. 공용경은 嘉靖 15년(朝鮮 中宗 31년) 11월 丁巳日 조선 사행이 결정되었고, 이듬해 3월 10일 한양에 도착한 뒤 7일을 머물렀다가 3월 17일 한양을 떠나 4월 8일 압록강을 건너 9월 庚寅日 북경에 돌아갔다. 동월의 사행 기간은 4개월을 조금 넘지만, 조선 체류 기간은 2달 남짓이고 한양에 머무른 시간은 겨우 6일이었다. 이에 반해 공용경의 사행 기간은 그가 사행 결정일 이후 바로 출발했다면 최장 10개월 정도였고, 조선 내 체류기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한양에 머문 기간은 8일이었다. 동월에 비해 공용경의 사행 기간이 2배 정

도 길었다고 볼 수 있다.

동월과 공용경은 한림원 소속의 문인 관료였다는 공통점과 함께 귀국 후 조선 사행 관련 기록을 저술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월은 귀국 이듬해에 초고를 완성한 뒤 사행 3년만인 성종 21년(1490) 『朝鮮賦』를 간행하였고, 조선에는 성종 23년(1492) 조선에 사행 온 艾璞을 통해 전해졌다. 동월은 『조선부』 이외에도 『使東日錄』과 『朝鮮雜志』를 지었지만, 모두 『조선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공용경은 북경에 도착하기도 전인 중종 32년(1537) 4월 15일 조선 사행의 경험을 담은 『使朝鮮錄』을 완성하였다. 귀국 이듬해에 간행된 공용경의 『사조선록』이 언제 조선에 전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종 34년(1539) 頒冊立皇太子恭上皇天上帝泰號二詔使로 조선을 찾은 翰林院侍讀 華察과 영의정 尹殷輔의 대화에서 이 책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출판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조선으로 전해졌다고 생각된다.

이로 보아 동월과 공용경의 조선 사행과 조선 사행 기록물의 출판은 대략 5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졌지만, 두 사람의 사행 과정이나 사행 기록물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명나라 사신의 조선 사행 양상이 지니는 유사함은 동월과 공용경 사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 당대 조선을 찾았던 명나라 사신들의 사행 양상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었다.

동월과 공용경 모두 당대 문명의 중심이었던 中華 즉 명나라의 관료문인으로, 자신들이 익히고 지켜온 중화 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세계의 중심에 명나라를 두고 사방의 이민족을 오랑캐라고 폄하하는 문화적 자존감을 가졌다. 동월과 공용경 같은 관료문인들 뿐만 아니라 당대 중국의 관리들 대부분이 中華主義를 그들 인식의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명나라 사신들이 주변 이민족 국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 시각에는 문화적 우월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명나라 사신들의 입장에서 조선은 異民族 國家, 즉 夷狄之國이었다. 그들이 조선을 바라보고, 조선의 풍속과 고유한 문화를 평가하는 잣대는 기본적으로 중화주의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조선을 文化와 禮儀의 나라라고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은 중화가 될 수 없었다. 특히 그들이 인정했던 조선의 문화와 예의는 조선 고유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식해 들어온, 조선에 정착된 중국의 예의와 문화였다. 그런 점에서 조선 당대 명나라 사신들이 인정한 조선은 절대적 평가체계 속의 조선이 아니라 중국 주변의 이민족 국가와 비교한 상대적 평가체계 속의 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당대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을 중국의 변방 국가로 보았고, 조선의 문명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조선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중국의 은덕이라고 여겼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대 명나라 사신들이 바라본 조선의 모습,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조선은 조금도 다름없이 모두 같은 것이었을까”하는 의문, 즉 “당대 명나라 사신들의 조선 인식과 평가는 모두 같은 것이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宦官이었던 太監은 말할 것 없고, 문신이었던 당대 명나라 사신들에 대한 조선 안의 평가조차 사신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의문을 기초로 기술된 것이다.

동월과 공용경이 각각 몇 번째로 조선을 찾은 명나라 사신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皇華集』과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정리한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월은 『황화집』에 기록된 7번째 사신이었고, 공용경은 12번째 사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명나라 귀국 이후 조선 사행의 경험을 기록을 남겼는데, 『황화집』에 수록된 26명의 명나라 사신 중 귀국 이후 조선에 관한 기록을 남긴 인물은 이들을 제외하고 세종 32년

(1450년) 頒登極詔使로 왔던 翰林侍講 倪謙(『奉使朝鮮倡和集』·『朝鮮紀事』·『遼海編』)과 세조 6년(1460년) 頒勅諭使로 왔던 禮科給事中 張寧(『寶顏堂訂正方洲先生奉使錄』), 선조 39년(1606년) 頒皇太孫誕生詔使로 왔던 翰林院修撰 朱之蕃(『奉使朝鮮稿』), 인조 4년(1626) 頒皇太子誕生詔使로 왔던 翰林院編修 姜曰廣(『輜軒紀事』) 4명뿐이다.

『황화집』과 『조선왕조실록』 소재 명나라 사신 관련 기록표

연번	使行年度	使行名	使行正·副使 (職責/人名)	接伴使/ 遠接使	皇華集 (刊行/序文)	朝鮮關聯 記錄有無
1	세종 32년 (1450년)	頒登極 詔使	翰林侍講 倪謙/ 刑科給事中 司馬恂	工曹判書 鄭麟趾	1450년 편찬/1458 년 간행/ 서문 없음	倪謙 『奉使朝鮮 倡和集』·『朝鮮 紀事』·『遼海編』
2	세조 3년 (1457년)	頒復位 詔使	翰林院修撰 陳鑑/ 太常寺博士 高閔	戶曹判書 朴元亨	1457년 편찬·간행 / 權擘	
3	세조 5년 (1459년)	頒勅諭使	刑科給事中 陳嘉猷/ 序班 王軏	刑曹判書 朴元亨	1459년 편찬·간행 / 洪允成	
4	세조 6년 (1460년)	頒勅諭使	禮科給事中 張寧/ 錦衣衛都指揮 武忠	刑曹判書 朴元亨	1460년 편찬·간행 / 崔恒	張寧 『寶顏堂訂正 方洲先生奉使錄』
5	세조 10년 (1464년)	頒登極 詔使	大僕寺丞 金湜/ 中書舍人 張城	禮曹判書 朴元亨	1464년 편찬·간행 / 李承召	
6	성종 7년 (1476년)	頒冊立皇 太子詔使	戶部郎中 祁順/ 行人司左司副 張瑾	議政府左 參贊 徐居正	1476년 편찬·간행 / 徐居正·李石亨	
7	성종 19년 (1488년)	頒勅諭使	右春坊右庶子兼翰林 侍講 董越/工科右給事中 王畝	吏曹判書 許琮	1488년 편찬·간행 / 魚世謙·金宗直	董越 「朝鮮賦」· 『使東日錄』·『朝 鮮雜志』
8	성종 23년 (1492년)	頒冊立皇 太子詔使	兵部郎中 艾璞/ 行人司行人 高胤	戶曹判書 盧工弼	1492년 편찬· 1506년 간행 (合本)/ 洪貴達	
9	중종 1년 (1506년)	頒登極 詔使	翰林院侍講 徐穆/ 未詳 吉時			

10	중종 16년 (1521년)	頒登極 詔使	翰林院修撰 唐阜/ 兵科給事中 史道	議政府左 參贊 李荇	1522년 편찬·간행 / 南袞	
11	중종 16년 (1521년)	頒登極詔 使續	未詳	未詳	1522년 편찬·간행 / 李荇	
12	중종 32년 (1537년)	頒皇太子 誕生詔使	翰林院修撰 龔用卿/ 戶科給事中 吳希孟	刑曹判書 鄭士龍	1537년 편찬·간행 / 金安老	龔用卿 『使朝鮮錄』
13	중종 34년 (1539년)	頒冊立皇 太子恭上 皇天上帝 泰號二詔 使	翰林院侍讀 華察/ 工科給事中 薛廷寵	議政府左 贊成 蘇世讓	1539년 편찬·간행 / 成世昌	
14	인종 1년 (1545년)	賜諡使	司禮監太監 郭王放/ 行人司行人 張承憲	吏曹判書 申光漢	1545년 편찬·간행 / 鄭士龍	
15	명종 1년 (1546년)	賜諡使	太監 劉遠/ 行人司行人 王鶴	吏曹判書 鄭士龍	1546년 편찬·간행 / 申光漢	
16	명종 22년 (1567년)	頒登極 詔使	翰林院檢討 許國/ 兵科左給事中 魏時亮	工曹判書 朴忠元	1567년 편찬·간행 / 洪暹	
17	선조 1년 (1568년)	賜諡使	太監 張朝/ 行人 歐希稷	吏曹判書 朴淳	1568년 편찬·간행 / 金貴榮	
18	선조 1년 (1568년)	頒冊立皇 太子詔使	翰林院檢討 成憲/ 兵科給事中 王璽	吏曹判書 朴淳	1568년 편찬·간행 / 李澗	
19	선조 6년 (1573년)	頒登極 詔使	翰林院修撰 韓世能/ 吏科給事中 陳三謨	工曹判書 鄭惟吉	1573년 편찬·간행 / 盧守愼	
20	선조 15년 (1582년)	頒皇太子 誕生詔使	翰林編修 黃洪憲/ 工科給事中 王敬民	左贊成 李珥	1583년 편찬·간행 / 鄭惟吉	
21	선조 35년 (1602년)	頒冊立皇 太子詔使	翰林學士 顧天峻/ 行人司行人 崔廷健	禮曹判書 李好閔	1602년 편찬·간행 / 沈喜壽	
22	선조 39년 (1606년)	頒皇太孫 誕生詔使	翰林院修撰 朱之蕃/ 禮科左給事中 梁有年	議政府左 贊成 柳根	1606년 편찬·간행 / 申欽	朱之蕃 『奉使朝鮮稿』

23	광해군 1년 (1609)	賜諡使	司禮監管文書內官監 太監 劉用/ 行人司行人 熊化	領中樞府 事 柳根	1609년 편찬· 1610년 간행 /李廷龜	
24	광해군 13년 (1621)	頒登極 詔使	翰林院學士 劉鴻訓/ 學士 楊道寅	禮曹判書 李爾瞻	1621년 편찬/ 柳夢寅	
25	인조 4년 (1626)	頒皇太子 誕生詔使	翰林院編修 姜曰廣/ 工部給事中 王夢尹	領中樞府 事 兼 吏曹判書 金瑬	1626년 편찬·간행 (合本)/李廷龜	姜曰廣 『輜軒紀事』
26	인조 11년 (1633)	奉安島衆 聯屬國勅 使	副總兵 程龍	兵曹參判 辛啓榮	1633년 편찬· 1634년 간행 /李敏求	

위 표에 나와 있는 명나라 사신들의 조선 관련 기록 중에서도 특히 동월의 『朝鮮賦』·『使東日錄』·『朝鮮雜志』와 공용경의 『使朝鮮錄』은 그들 다음 使行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으며, 이후 조선 사행 기록의 전범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중국과 조선 양쪽 모두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선 내의 평가는 상당한 부분에서 다른 점을 보여준다. 이 차이점이 두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조선 인식의 본질적인 차이라거나 조선에 대한 평가의 相異함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 차이는 이들의 조선 인식과 그에 따른 행위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고 개인의 행위는 그 개인의 의식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글을 통해 동월과 공용경에 대한 조선의 평가가 그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 행위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조선에 대한 인식에 의한 것이었음이 증명된다면, 당대 조선에서 이루어진 중국 사신과 중국 지식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대 중국 사신들과 중국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었

던 조선 인식의 개인적인 間隙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사회 지식인들의 인식이 지니는 개인적인 間隙의 검토가 인식 대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동월과 공용경이 지니고 있었던 조선 인식의 층차는 당대 명나라 사신들의 조선 인식 나아가 당대 명나라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조선 인식의 객관적인 실체를 살펴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서술 목적과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은 동월과 공용경이 지니고 있었던 조선 인식의 간극과 그 간극이 지니는 의미의 확인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더 넓게는 이를 통해 당대 명나라 지식인들의 조선 인식 양상과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객관화·상대화된 조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中國 記錄 속의 董越과 龔用卿

조선시대 조선을 찾은 명나라 사신의 수는 정확하지 않다. 명나라 277년간 중국 사신의 조선 출사 횟수는 153회, 조선 사신의 중국 파견은 1,252회<sup>1)</sup>라고 하기도 하고, 조선 태조 때부터 선조 때까지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보낸 사신의 횟수는 168회이고, 같은 기간 조선이 명에 보낸 사신의 횟수는 569회<sup>2)</sup>로 보기도 한다.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정확한 사행 횟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조선에서 명나라로 보낸 사신의 횟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조선 태조부터 연산군 때까지 조선에서 1년에 3使(賀正使, 聖節使, 千秋使)를 보내다가 중종 26년인

1) 姜陽, 『朝鮮前期 朝明 使行外交와 交通路』,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6.

2) 金已花, 『『皇華集』의 編纂과 板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7.

1531년부터 冬至使를 추가하여 1년에 4使를 보냈기 때문<sup>3)</sup>이라고 한다.

조선 개국 초기 빈번했던 명나라 사신의 조선 사행은 후대로 오면서 점차 감소한다. 정확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은정은 조선 태조 때 9건, 태종 때 50건, 세종 때 36건의 사신 왕래가 문종 때 2건, 단종 때 3건, 세조 때 9건, 예종 때 1건, 성종 때 8건, 연산군 때 3건, 중종 때 6건, 인종 때 2건, 명종 때 4건, 선조 때 35건, 광해군 때 14건, 인조 때 4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사이 선조 때 갑자기 사행 횟수가 늘어난 것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明軍의 파병 문제 때문<sup>4)</sup>이라고 했다. 김은정이 주장한 사행 횟수의 정확성을 확신하기는 쉽지 않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명나라 사신의 조선 사행이 줄어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시기 조선으로 온 명나라 사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宦官이었고, 다른 하나는 文臣이었다. 조선 개국 초 조선이 정도전의 요동정벌, 여진족과의 문제 등으로 명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에는, 명나라에서 조선의 문물을 멸시하여 주로 환관을 보내 갈등을 악화시키기도 했지만, 조선 세종 대에 이르러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국경문제가 해결되고 명나라에서 조선의 문물을 인정하게 되면서 명나라에서는 문명이 높은 인물을 조선에 파견하게 되었다. 이 시기 조선의 문제로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사신은 환관이, 명나라의 문제로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사신은 주로 문관이 맡았다<sup>5)</sup>.

명나라의 문관 사신이 조선에 사행을 온 시점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3) 朴元燾,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2002, pp.291-296.

4) 金垠廷, 「庚午本『皇華集』 편찬경위와 詩文酬唱의 의미」, 『韓國漢詩研究』 7, 韓國漢詩學會, 1999, p.310.

5) 김은정, 「朝鮮初期 事大外交와 『皇華集』 刊行에 대하여」, 『제9회 研究發表大會 資料集』, 韓國漢詩學會, 1999, p.123.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 볼 때 최소한 세종 32년(1450)에는 문관 사신이 왔음을 알 수 있다. 『皇華集』의 기록을 통해 이 때 翰林侍講 倪謙과 刑科給事中 司馬恂이 頒登極詔使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겸과 사마순은 『황화집』과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문관 사신이다. 이후로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몇 명의 문관 사신이 몇 번이나 더 조선에 사행을 나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론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황화집』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명나라의 문관 사신은 24차에 걸쳐 모두 39명이었다.

이 글에서는 서론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당대 조선을 찾았던 명나라의 문관 사신 중 董越과 龔用卿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 글에서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사행 이후 조선에 관한 기록을 남겼으며, 그 기록이 이들 다음 使行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 사행을 기록하는 전범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의 조선에 대한 관심과 관찰의 정도가 다른 사신들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장에서는 동월과 공용경이라는 인물에 대한 중국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월과 공용경에 대한 중국 내의 기록과 평가는 대체로 상당히 좋은 편이다. 동월에 관한 중국 내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동월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월의 저작물 특히 『조선부』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된다<sup>6)</sup>. 그 중 동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대체로

6) 『조선부』를 비롯한 동월의 저작에 관한 기록은 『欽定四庫全書總目』과 여타 전적에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기로 한다. 『조선부』를 직접 거론한 『欽定四庫全書總目』 71卷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朝鮮賦一卷, 明董越撰. 越字尙矩, 寧都人. 成化己丑進士, 官至南京工部尙書, 諡文僖. 孝宗即位, 越以

다음과 같다.

동월의 자는 尙矩로,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가난하였지만 힘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하였고, 孝宗이 등극하자 春坊右庶子가 되어 麒麟服을 받았으며, 조선에 사신을 갔을 때는 조선에서 주는 선물을 하나도 받은 것이 없어 조선의 사신이 명나라에 올 때마다 반드시 동월의 안부를 물었다고 했다. 『憲宗實錄』이 완성되자 太常少卿 兼 侍講學士, 南京禮部右侍郎에 발탁되었고, 南工部尙書에 임명되었으며, 운명 이후 文僖라는 시호를 받았다고 한다<sup>7)</sup>. 또, 동월은 풍채가 엄숙하고 진중하며 언동에 준칙이 있어 남의 좋은 점을 말하기를 즐겨하고 가볍게 허락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여 남의 단점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고 바르게 충고하는 일을 잊지 않았으며 욕심이 적었고 검소하게 생활하려 힘썼다고 한다. 봉록이 들어오면 언제나 종족과 지인들 가운데 가난한 이를 도와주었다고도 한다<sup>8)</sup>.

---

右春坊右庶子兼翰林院侍講, 同刑部給事中王敞, 使朝鮮, 因述所見聞以作此賦. 又用謝靈運山居賦例, 自爲之註, 所言與明史朝鮮傳皆合, 知其信而有徵, 非鑿空也. 考越自正月出使五月還朝, 留其地者僅一月有餘, 而凡其土地之沿革, 風俗之變易, 以及山川亭館人物畜產, 無不詳錄, 自序所謂得於傳聞周覽, 與彼國所具風俗帖者, 恐不能如是之周匝, 其亦奉使之始, 預訪圖經, 還朝以後, 更徵典籍, 參以耳目所及, 以成是製乎. 越有文僖集四十二卷, 今未見其本, 又別有使東日錄一卷, 亦其往返所作詩文, 不及此賦之典核, 別本孤行, 此一卷固已足矣.”

7) 『江西通志』卷 94, “董越字尙矩, 少孤貧竭力以奉母, 嘗教授村中夜歸, 熒熒有光前導, 比及門 咆哮而去, 則虎也. 越以此自負, 人亦以此奇之. 成化乙醜及第第三人, 授翰林院編修, 上西北備邊封事, 乙未戊戌, 分考禮闈, 取中大學士, 王鏊梁儲等稱得人. 進侍讀充東宮講讀經筵講官, 屢有開陳, 孝宗登極, 進春坊右庶子, 賜麒麟服, 頒朔朝鮮, 餽贈一無所受, 朝鮮歲使至, 必問越起居焉. 憲宗實錄成, 擢太常少卿兼侍講學士, 擢南京禮部右侍郎, 尋拜南工部尙書, 贈太子少保. 諡文僖, 著圭峰文集使東日錄寧都先賢傳.”

8) 김한규, 「董越의 「朝鮮賦」와 迎詔禮 論爭」, 『사조선록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p.212.

이 외에도 『明一統志』와 『大清一統志』를 살펴보면 동월이 어려서 가난 하였지만, 힘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는 것<sup>9)</sup>과 성품이 곱고 신실하였으며 학문의 폭이 넓고 글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청렴 검소하고 단정하며 엄격하여 관직에서 추중받았음<sup>10)</sup>을 알 수 있다. 동월에 관한 기록 중 특이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江西通志』의 기록인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호랑이가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은 동월에 관한 이야기가 후대에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고 미화되어 전해졌음을 보여준다.

중국 내 전적에 기록되어 있는 동월 관련 기사의 내용과 같이 공용경에 관한 중국 내의 기록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공용경에 관한 기록도 공용경이라는 인물과 그의 저작물인 『사조선록』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sup>11)</sup>, 이 글에서는 공용경 개인에 관한 기록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용경은 懷安사람으로 자를 鳴治라고 하는데 嘉靖 丙戌년에 급제하여 翰林修撰 兼 侍讀이 되었고, 『明倫大典』과 『大明會典』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一品服을 하사받았으며 조선에서 주는 선물을 힘써 물리쳤고 돌아와 복명하는 날 세 가지 일을 아뢰어 모두 허락을 받았다. 南京 國子監 祭酒에 발탁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는데 공용경은 수염과 눈썹이 아름다웠으며 정신이 곱고 지조와 절개를 굳게 지켜 벼슬에서 물러난 20년동안 권세가와 접하지 않았다고 한다<sup>12)</sup>. 또, 공용경은 어려

9) 『大清一統志』卷 256, “明董越, 寧都人. 少孤貧奉母孝, 成化五年授編修, 孝宗即位遷右庶子, 使朝鮮多所撰述, 累官南京工部尚書, 卒諡文僖, 所著有圭峯文集, 使東日錄.”

10) 『明一統志』卷 58, “董越寧都人, 性雅飭, 博學善文. 成化己丑進士及第, 累官翰林學士南京工部尚書, 嘗典會試, 文衡所取多人, 奉使朝鮮著朝鮮賦, 清介端謹, 館閣推重, 卒諡文僖. 省志.”

11) 『조선부』를 비롯한 동월의 저작에 관한 기록과 같이 공용경에 관한 기록도 『欽定四庫全書總目』과 여타 전적에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지면 관계상 이 글에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부터 총명하였고, 커서는 문장을 잘 지었는데 經史를 읽고 익힘에 한 번 읽으면 빠뜨림이 없어 邑庠의 弟子員에 뽑혔다고 한다. 그는 평소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두터웠으며, 해학을 즐기는 성품이라 손님과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어도 싫증내지 않았다고 한다. 侍從의 관직을 역임하면서는 文名이 무성했고 병으로 사직한 이후 曾君佩와 趙孔昭가 천거하였지만 그를 꺼려 음해하는 자가 있어 다시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sup>13)</sup>.

동월과 공용경에 관한 중국 내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 모두 전형적인 관료 문인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동월에 관한 기록과 견주어 보아 공용경의 성품이 훨씬 더 강직하여 적지 않은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두 사람 모두 儒家的 道德觀에 충실한 청렴한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는 문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에 관한 기록에서 그들의 청렴함을 밝히는 공통적인 근거로 서술한 것이 그들이 조선 사행에서 별다른 사례물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월에 관한 기록에서 “조선에 사신 갔을 때 선물로 주는 물건을 하나도 받지 않아 조선의 사신들이 올 때마다 반드시 동월의 안부를 물었다[頒朔朝鮮, 餽贈一無所受, 朝鮮歲使至, 必問越起居焉.]”는 것이나 공용경에 관한 기록에서 “조선에 사신 가 힘써 주는 선물을 사양하였다[丙申奉詔使朝鮮, 賜一品服, 力却遠人餽贖.]”는 것이다.

이 기록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파악은 중국의 기록이 아니라 조선의 기

12) 『福建通志』卷 43, “龔用卿字鳴治, 懷安人. 嘉靖丙戌廷對第一人, 授翰林修撰兼侍讀, 直經筵, 預修明倫大典大明會典. 丙申奉詔使朝鮮, 賜一品服, 力却遠人餽贖, 復命日疏陳三事, 皆見嘉納. 擢南京國子監祭酒, 增修學舍, 申飭監規, 尋以病乞還. 用卿美鬚眉丰神朗瑩持節, 恬退在告二十年, 不通權貴. 所著有使朝鮮錄雲岡選稿詩餘若干卷.”

13) 김한규, 『明使 龔用卿의 『使朝鮮錄』과 朝明 儀禮 關係』, 『사조선록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pp.244-245.

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기록으로 최소한 2가지 정도의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을 듯하다. 첫 번째는 당대 중국 사신들의 일반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다. 당대 중국 사신들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주변국에 사신을 가 상당한 정도의 횡포를 부렸다. 환관에 비해 문신 사신들의 행위가 비교적 절감았다고는 하지만, 사행시 주변국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주변국에 적지 않은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였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조<sup>14)</sup>, 연산군<sup>15)</sup>, 중종조<sup>16)</sup>의 기사를 볼 때 그와 같은 상황은 조선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는 당대 그들의 실제 행위가 어떠했던 중국에 돌아가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상당한 정도로 미화하여 보고하였고, 중국 조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보고를 사실로 받아들이고자 했다는 것이다. 당대 조선에 사신 온 문인 사신들이 『황화집』의 간행을 독촉한 것이나 전별시 사례물을 받으며 중국 조정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중국 조정에 어떻

14) 『朝鮮王朝實錄』成宗 19年 11月 2日, “中朝使臣之來, 國家支持之弊, 聖鑑所洞照. 金湜·鄭同之行, 國儲掃如; 董越·王歛之行, 不犯秋毫. 大小雖異, 事體則同, 其間誅求無厭之狀, 難以盡陳.”

15) 『朝鮮王朝實錄』燕山 9年 3月 12日, “且如文臣天使則都司率護送軍二三千, 太監則摠兵官率八千出來. 臣嘗爲義州牧使, 天使董越·王歛之行, 計所費四千餘斛. 其他本朝赴京護送之軍, 滿浦常時出來野人支供之物亦不賫, 而年年本道田稅減三分, 故其數不敷. 國家慮軍資之減耗, 歲輸司瞻寺絛布一千匹, 質米而補之, 然守令例買五六斗, 計不過三四百斛. 以所入之數, 計所出之費, 則餘積無幾, 萬有邊患則糧道無由可繼, 爲今之計, 莫急於屯田.”

16) 『朝鮮王朝實錄』中宗 34年4月 26日, “癸亥. 以幼學李景雲策文試券, 下于政院曰: ‘自上見此策文, 雖儒生之言, 甚合於時弊矣.’ 其策曰: ‘我國之事上國, 所不得已, 使命之來, 不可以民弊而辭焉. 朝聘之使, 不可以民弊而停焉. 但華使之來, 支供過侈, 使臣之赴京, 資送過多, 守令之營求侵虐已極. 除此數者之事, 則祛一道之弊矣.’ 以祖宗朝事見之, 亦有一年之內, 華使疊來, 而如太監天使, 至留四五月. 其時支供, 亦必煩, 而未聞愆困. 今者三年之間, 天使疊至, 而凡事皆困. 赴京使臣, 古亦有之, 而今則一路尤爲困苦者, 是必使臣資送過多, 守營令求太多, 故民生之困, 至此極矣.”

게 설명할 것인지를 물었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sup>17)</sup>을 본다면 이 사실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중국 내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Ⅲ.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본 董越과 龔用卿

중국의 문헌 속에 기록되어 있는 동월과 공용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조선왕조실록』 속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동월과 공용경에 대한 중국 내 기록은 일단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속에 기록된 이들의 모습은 중국의 기록과 같이 긍정 일변도로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공용경의 모습은 긍정과 부정을 극단적으로 오간다. 이 장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기록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사행 이전 이들에 대한 조선의 기대와 탐색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董越 등은 모두 문장에 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sup>18)</sup>.

正使 董越의 나이는 58세로, 江西 贛州人이며, 기축년에 進士 第二名에 등第하였습니다. 副使 王敞의 나이는 36세로 南京 城內에 살며, 신축년에 進士로 등제하였습니다. 正使는 성품이 和厚하고, 副使는 성품이 明察하며,

17) 『朝鮮王朝實錄』 成宗 19年 3月 13日, “受此單子, 則是受所贈之物也. 殿下尊敬朝廷, 待之如此, 多謝多謝. 殿下之贈遣, 禮也; 吾之不受, 畏朝廷也. 各盡其道可也.’ 瑛又呈人情單子于副使, 副使曰; ‘殿下誠意, 多謝多謝. 然畏朝廷法制, 不敢受也. 吾等執法之官, 言人得失者也, 何爲受此.’ 固辭不受.”

18) 『朝鮮王朝實錄』 成宗 19年 閏1月 23日, “人言董越等皆能文者也.”

接人하는 데 이르러서는 모두가 공손하고 삼가며 禮를 다하고 있습니다. 25일 臣이 兩使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였더니, 정사가 신에게 말하기를, ‘전에 朝鮮에서는 讀書하고 禮를 안다고 들었는데, 이제 宰相의 行禮를 보니, 전에 들은 것이 거짓이 아님을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行酒할 때도 再三 말하였습니다.

宣慰使 蔡壽가 宣慰宴을 행한 뒤에, 正使의 房에 가 人情單子를 주니, 정사가 채수를 불러 말하기를, ‘만약에 겨울철의 禦寒하는 기구라면 받아도 해로움이 없을 것 같으나, 이제 天氣가 따뜻하고 스스로 입은 衣服이 있으니, 이것을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여, 채수가 請하기를, ‘옛사람이 ‘광주리[筐]로 받는다’고 하였으니, 잔치를 베풀고 禮物이 있는 것은 예로부터 있는 일입니다. 또 전하께서 薄物을 보내신 것이니 大人이 받으신다고 어찌 해롭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광주리로 받는다.’고 한 것은 바로 宴幣이고 衣服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미 전하의 誠意를 알았으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채수가 도로 나와 신과 다시 청하기를, ‘魚肉은 貨物에 비할 것이 아니고, 또 遼東 사람으로 대인을 위하여 온 자가 적지 않으니, 대인이 받아서 주시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정사가 ‘두 宰相의 말이 정히 옳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區處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채수가 또 부사의 房에 가 人情單子를 주니, 부사가 ‘전하의 厚意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마는, 이 물건은 진실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받으면 朝廷에서 나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채수가 재삼 청하였어도 굳게 물리치므로 채수가 또 ‘衣服은 모르겠지만 食物은 正使大人도 이미 받았 습니다.’ 하니, ‘正使가 받았으면 나도 받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채수가 또 의복을 兩使의 頭目에게 주었더니,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sup>19)</sup>.

19) 『朝鮮王朝實錄』成宗 19年 2月 29日, “正使董越, 年五十八, 江西贛州人, 登己丑進士第二名. 副使王敏, 年三十六, 居南京城內, 登辛丑進士. 正使性和厚, 副使性明察, 至於接人, 皆恭謹致禮. 二十五日, 臣與兩使同夕食, 正使語臣曰; ‘舊聞朝鮮讀書知禮, 今見宰相行禮, 方信前聞之不謬.’ 及行酒, 亦再三言之. 宣慰使蔡壽行宣慰宴後, 詣正使房, 呈人情單子, 正使招壽語之曰; ‘若冬月禦寒之具, 則受之似無妨. 今天氣已暖, 自有所着衣服, 受此何用.’ 壽請曰; ‘古云承筐是將, 宴而有禮物, 古也. 且殿下

文臣인 천사는 太監의 무리와 같지 않아서 더욱 높여서 대접해야 한다. 이제 들으니 副使는 성질이 급하다 하니 접대하는 사이에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 正使는 長篇을 잘 짓는다 하는데, 이는 중국에서 정선된 사람일 것이니, 卿은 힘써 대접해야 한다. …… 副使는 모르겠으나, 上使는 신이 赴京하였을 때에 들으니, 翰林院修撰으로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 이번에 오는 龔用卿도 才名이 있는데, 신이 중요한 임무를 받아 밤낮으로 우려하되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나 ……<sup>20)</sup>

위에서 인용한 세 편의 글은 모두 동월과 공용경이 조선의 왕을 접하기 전 그들에 대해 왕에게 알리고 접대를 논의한 내용이다. 인용한 내용을 보면 동월과 공용경을 직접 접하기 이전 두 사람에 대한 조선 내부의 평가가 상당히 우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조선에서는 동월과 공용경이 文翰에 뛰어난 문신으로, 이전까지 조선에 사신을 왔던 宦官 太監과 달리 비교적 청렴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특히 두 번째 인용한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동월의 청렴함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실제 사행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는 이 두 사람에

---

爲送薄物, 大人受之何害.’ 答曰; ‘承筐是將, 乃宴幣也, 非謂衣服也. 且已知殿下誠意, 不必受也.’ 壽還出, 與臣更請曰; ‘魚肉非貨物之比, 且遼東人爲大人來者不少, 大人受而與之, 無乃可乎.’ 正使曰; ‘兩宰相之言正是. 明朝吾當區處.’ 壽又詣副使房, 呈人情單子, 副使語之曰; ‘殿下厚意, 多謝多謝, 但此物固難受. 若受則朝廷謂我何如也.’ 壽再三請之, 固却. 壽又請曰; ‘衣服則已矣, 食物, 正使大人已受之矣.’ 答曰; ‘正使受之, 則吾亦受之.’ 壽又給衣服于兩使頭目, 亦皆不受. 二十六日, 令取人情魚物置坐前, 同議分與遼東軍人; 宣慰宴卓, 亦分與之.”

- 20) 『朝鮮王朝實錄』中宗 31年 12月 8日, “且文臣天使, 非如太監之類, 尤宜尊待. 而今聞副使性急. 接待之間, 不可少有不稱也. …… 聞正使善爲長篇. 此必中朝之精選, 卿宜勉力而待之. …… 副使則未知也, 上使則臣赴京時聞之, 以翰林院修撰, 有名於中朝者也. …… 今來龔用卿, 亦有才名. 臣受此重任, 夙夜憂慮, 固知不堪.”

대한 평가가 달리 나타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동월과 공용경 모두 조선 고유의 풍속과 문화에 대해 기이함과 흥미를 보였고, 조선의 문화가 중국과 합치될 때 또 유가적 도덕관이나 관념체계와 일치할 때 칭양하고 존송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 사행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冊封-朝貢 관계의 확립을 통한 봉건적 질서 유지를 위해 그들 이전까지 조선에서 거행하고 있었던 迎詔儀禮에 대해 상당한 수정을 요구하여 조선의 君臣을 당혹하게 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조선 안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밤 2鼓에 임금이 太平館에 거둥하여 下馬宴을 행하고 5鼓에 還宮하였다. 都承旨 宋瑛에게 명하여 仁情物을 내려주니, 上使가 物目單子를 보고는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송영이 굳이 청하니, 상사가 單子를 내버려 두면서 말하기를, “이 單子를 받으면 이것은 주시는 물건을 받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조정을 존경하여 대접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하께서 주심은 禮이고 내가 받지 아니함은 조정을 두려워함이니, 각각 그 道를 다함이 옹습니다.” 하였다.

송영이 또 人情單子를 副使에게 주니, 부사가 말하기를, “전하의 誠意는 감사하고 감사하오나, 朝廷의 法制를 두려워하여 감히 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법을 집행하는 官吏로서 사람의 잘잘못을 말하는 자이니 어찌 이를 받겠습니까?” 하고, 굳이 사용하며 받지 않았다<sup>21)</sup>.

21) 『朝鮮王朝實錄』成宗 19年 3月 13日, “夜二鼓, 上幸太平館, 行下馬宴, 五鼓還宮. 命都承旨宋瑛留贈人情物. 上使覽物目單子, 辭不受. 瑛固請之, 上使留單子, 曰; ‘受此單子, 則是受所贈之物也. 殿下尊敬朝廷, 待之如此, 多謝多謝. 殿下之贈遺, 禮也; 吾之不受, 畏朝廷也. 各盡其道可也.’ 瑛又呈人情單子于副使, 副使曰; ‘殿下誠意, 多謝多謝. 然畏朝廷法制, 不敢受也. 吾等執法之官, 言人得失者也, 何爲受此.’ 固辭不受.”

이전에 董·王 두 중국 사신은 모두 도리를 아는 朝士였으므로 여러 아랫사람들을 금지시켜 진실로 이와 같이 貿易하는 일은 없었습니다<sup>22)</sup>.

중국 사신이 오면 국가에서 支持하는 궤단은 성상께서 환하게 알고 계시는 바로서, 金湜과 鄭同의 행차에서는 國儲가 쓸어낸 듯 다하였으나 董越과 王敞의 행차에서는 추호도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大小는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事體는 같은데 그 사이 요구하기를 싫어하지 아니하는 형상은 다 진술할 수 없습니다<sup>23)</sup>.

친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즐긴 때는 祈順·董越이 왔을 때만한 것이 없었는데, 조용히 머물러 詩文으로 문답한 말이 많이 있고 성종을 칭찬한 것도 지극하였습니다<sup>24)</sup>.

위에서 인용한 글은 모두 조선 사행 당시의 동월에 대해 평가한 『조선왕조실록』 속의 기록이다. 이 기록을 보면 조선에서 동월에 대해 상당한 호평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에서 동월에 대해 호평을 가한 우선적인 이유는 그의 청렴에 의한 것이었다. 인용한 첫 번째 글은 동월이 사신에게 주는 의례적인 謝禮物를 사양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글은 동월이 데리고 온 수하들을 단속하여 사사로운 무역을 금했고, 이에 따라 동월의 조선 사행 기간 동안 중국 사신 일행의 私貿易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글은 동월이 조선 사행동안 貪虐한 요구를 하지 않아

22) 『朝鮮王朝實錄』 成宗 19年 5月 7日, “日者董·王兩天使皆識理朝士, 能禁戢群下, 固無如此貿易等事.”

23) 『朝鮮王朝實錄』 成宗 19年 11月 2日, “中朝使臣之來, 國家支持之弊, 聖鑑所洞照. 金湜·鄭同之行, 國儲掃如; 董越·王敞之行, 不犯秋毫. 大小雖異, 事體則同, 其間誅求無厭之狀, 難以盡陳.”

24) 『朝鮮王朝實錄』, 中宗 31年 12月 30日, “天使之來我國, 酒談歡欣之時, 莫如祈順·董越之事也. 從容留此, 多有詩文答問之語. 稱贊成廟, 亦爲至矣.”

國庫의 소비가 심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의 고통이 다른 사신들에 비해 상당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글은 동월의 품성과 행동, 시문 창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같은 문신 사신이었고 청렴함에 있어서는 동월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기대했던 공용경에 대한 평가는 이와 달리 나타난다.

두 사신이 즉시 편복 차림으로 나서자, 모시는 신하들이 분개하고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비로소 사신들이 경박하고 부당한 짓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모시는 신하들이 두 사신의 무례함을 분개하고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정사가 스스로 이처럼 자신을 중한 채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사대가 지성스럽기 때문에 정성껏 조사를 대우하여 지극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이 한 것인데, 어찌 경솔하고 무례한 조사가 평상복 차림으로 탄 나라가 대접하는 향연에 나올 줄 짐작이나 했겠는가. 한 나라의 임금을 끌고 정원 안을 두루 걸으므로 예복인 袞龍袍가 풀이슬에 질질 끌리게 되고 그 울퉁불퉁한 험한 구름과 골짜기에서 玉步가 기우뚱거리게 되었으니, 시종 공경하고 근신하여 조금도 권태스러운 기색이 없으셨다. 이는 비록 聖上의 사대하는 지성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詔使의 절제하지 않음이 한결같이 이르렀으므로 모시는 신하 및 將士와 아래로 軍卒 및 종들까지 분개하고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경희루 아래로 돌아와 각기 揖하고 자리에 나아갔다. 인정을 표하는 물건 단자를 두 사신 앞에 내놓으니 정사가 말하기를, “예물이 너무 많아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인삼 30여 근은 너무 많으니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므로, 상이 “이는 곧 차를 끊이는 삼이니 물리치지 마십시오.” 하니, 두 사신이 “우리들도 이미 물건을 드렸으니 마땅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 또 두목들에게 인정을 표하는 물품 단자를 내놓으니, 정사가 “笠帽은 벌써 이미 주시었으니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油氈은 단지 奏帶한 두목 여덟 사람에게만 주고 그 나머지는 주지 마십시오.” 하므로, 상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상이 “두목들에게 활과 화살을 주었으면 합니다.” 하니, 두 사신이 “두

편의 두목 각 30인에게만 각각 활 하나 화살 10개씩 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활과 화살을 모두 거두었다가, 回國할 때에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하다가, 조금 뒤에 두 사신이 “활과 화살은 단자에 없으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

정사가 큰 붓을 들고서 종이를 펴놓고 탁자에 임하여, 요동 통사 康鑣을 불러 “나이 젊은 기녀 두 사람을 가리어 촛불을 들고 탁자 머리에 서도록 하고, 또한 나이 젊은 기녀 네 사람을 가리어 앞으로 들어와 춤을 추게 하라.” 하였다. 정사가 춤을 눈여겨보다가 “이는 仙鶴의 춤이다.” 하였고, 정사가 촛불을 들고 있는 기녀의 머리 위에 단장한 꽃이 촛불 가까이에서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불붙게 될까 싶다.”하며, 빼버리도록 했는데, 대개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려는 것이었다. 또 “이 두 기녀의 키가 같지 않으니 한 사람을 바꾸어야 하겠다.”하고, 정사가 촛불 든 기녀를 흘겨 보며 마음을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여, 큰 붓에 적신 먹물을 그 기녀를 향해 뿌려 기녀의 옷과 얼굴에 먹물이 튀기었다. 또한 그 기녀에게 탁자 머리에 오래 서 있게 하고서 붓을 들고 헛내들러 마치 장차 글자를 쓰려는 형상만 하고 즉시 下筆하지는 않았으며, 한참동안 붓을 희롱하기도 하고 농담하기도 하다가 그만 두었다. 이로부터 殿위가 시끄럽고 소란해져, 상계서도 또한 어찌 할 수가 없게 되므로 左右의 侍從들이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sup>25)</sup>.

25) 『朝鮮王朝實錄』中宗 32年 3月 14日, “兩使卽以便服出, 侍臣無不憤恨, 始知其輕薄不中也. …… 侍臣莫不憤恨兩使之無禮也. …… 正使之自重其身類此. 我殿下事大至誠, 故款待詔使, 無所不用其極, 而豈期詔使之輕率無禮. 以燕居之服, 當異國之禮享, 引一國之主, 周步園中, 袞龍禮服, 垂曳草露, 崎嶇陵谷, 玉步傾側, 而終始敬謹, 小無倦色. 此雖發於聖上事大之至誠, 而詔使之不檢, 一至於此. 侍臣及將士, 下至卒隸, 莫不憤惋. …… 還至樓下, 各揖就坐, 進人情物件單子于兩使前, 正使曰: ‘禮物太多, 不敢受也. 且人參多至三十餘斤, 請減之.’ 上曰: ‘此乃湯茶之參, 請勿却.’ 兩使曰: ‘俺等亦已獻物, 當依命.’ …… 又以頭目人情物件單子呈之, 正使曰: ‘笠帽則曾已許之矣, 不必更給之也. 油笔則只給奏帶頭目八人, 其餘勿給.’ 上曰: ‘依命.’ …… 上曰: ‘請贈頭目以弓矢.’ 兩使曰: ‘兩邊頭目各三十人, 各賜弓一丁, 矢十箇可也. 然俺等合此弓矢而收之, 回程時, 見其能射者而給之.’ 俄而兩使曰: ‘弓矢無單子, 不可受也.’ …… 正使秉大筆, 展紙臨卓, 招遼東通事康鑣曰: ‘擇年少妓二人, 秉燭立于卓

상당히 길게 인용해 보았는데, 이 글은 『朝鮮王朝實錄』 中宗 32年 3月 14日條의 기록이다. 이날 중종은 공용경, 吳希孟 두 사신과 慶會樓에서 잔치를 열고 후원을 산보하였는데, 이 글은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공용경에 대한 평가의 대체적인 내용이어서 길지만 인용해 보았는데, 이 글을 통해 당시 조선에서 공용경을 비판한 것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한 글의 단락은 공용경을 비판한 내용에 따라 필자가 구분해 놓은 것인데, 첫 번째 단락은 공용경의 무례하고 오만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다. 이 단락에서 당시 조선의 臣僚들이 공용경과 오희맹이 便服 차림으로 일국의 국왕이 베푼 연회에 참석했다는 것과 국왕에게 정원의 산보를 권하여 국왕의 곤룡포가 흠과 이슬에 젖게 만들었다는 것에 상당히 분개하고 있었고, 이들의 행위를 오만불손하고 무례한 행위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臣僚들은 조선이 비록 명나라의 藩國 취급을 받기는 하지만, 조선의 자주적 위상에 대한 긍지를 지니고 있었고, 天子와 諸侯가 지위는 다르지만 한 나라의 임금인 것은 같다고 여겼다. 따라서 조선의 신료들은 공용경이 조선의 국왕이 베푼 연회에 편복으로 참여한 것이나 국왕에게 산보를 권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공용경의 이와 같은 무례함은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sup>26)</sup>.

두 번째 단락은 공용경의 청렴에 대한 비판과 회의이다. 이 단락의 기술

---

頭, 又擇年少妓四人, 入舞於前.’ 正使熟規之曰; ‘此仙鶴之舞也.’ 正使見秉燭之妓, 頭上粧花, 垂襯於燭曰; ‘恐其見燕.’ 命拔去, 蓋欲灼見其面也. 又曰; ‘此兩妓, 長短不相似, 改其一可也.’ 云. 正使睨視執燭之妓, 心不自定, 以大筆濡墨, 向妓而揮之, 墨濺于妓之衣及面上. 且要使妓, 久立於卓頭, 秉筆虛揮, 將若寫字之狀, 而不卽下筆, 弄筆談謔, 良久乃已. 自此殿上喧擾雜亂, 自上亦無如之何矣. 左右侍從, 驚駭罔措.”  
26) 『朝鮮王朝實錄』 仁宗 1年 4月 24日, “凡行禮及宴享時, 禮貌至恭, 異於龔天使之慢矣.”

에서 동월과 다른 점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을 보면 최초 공용경이 “예물이 너무 많아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인삼 30여 근은 너무 많으니 줄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그 역시 동월처럼 사례물에 대해 사양하는 듯 했지만 중종이 “이는 곧 차를 끊이는 삼이니 물리치지 마십시오” 하자 공용경은 “우리들도 이미 물건을 드렸으니 마땅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는 물건을 모두 받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날 기록에도 그대로 나온다.

人情을 표하는 물건 단자를 내놓고, 義州와 定州 등지에서 迎慰 때의 인정 물건 단자도 아울러 내놓으니, 상사가 “어제 이미 주시는 것을 받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하시니 미안합니다.” 하고, 부사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므로, 상이 “이는 준례의 물건이니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사가 매우 감사하다고 하였다<sup>27)</sup>.

이 기록으로 보아 처음부터 공용경은 조선에서 주는 사례물을 사양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공용경의 이런 태도는 그가 비록 이전에 조선으로 사신 왔던 宦官인 太監의 貪虐을 부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렴했다거나 조선의 기대에 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게 만든다. 특히 “龔·吳 두 사신이 頭目 90여 인을 거느린 것은 전에 없던 (많은 수의 일행을 데리고 온) 일이었다<sup>28)</sup>”라거나 “전에는 天使가 왔을 때 사용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자가 없었으므로 수선해서 썼으나, 공·오가 왔을 때에는 (사용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번 天使의 경우에는 다시 준비한 것이

27) 『朝鮮王朝實錄』中宗 32年 3月 15日, “進人情物件單子, 義州·定州等處迎慰時, 人情物件單子, 竝呈之. 上使曰; ‘昨已蒙賜, 今又如此, 未安.’ 副使曰; ‘多謝多謝.’ 上曰; ‘此爲例物, 請勿却.’ 上使曰; ‘多謝多謝.’”

28) 『朝鮮王朝實錄』中宗 34年 1月 28日, “龔·吳天使, 率頭目九十餘人, 前古所無也.”

많다<sup>29)</sup>”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연계하여 보았을 때, 공용경의 청렴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기록에 나와 있는 ‘조선에서 주는 선물을 힘써 물리쳤다’는 내용을 문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여색에 미혹된 공용경에 대한 비판이다. 공용경에 대한 이 단락의 평가는 앞의 두 단락보다 훨씬 더 비판적이다. 이 단락에서 볼 수 있는 공용경의 모습은 조선 사행 전 조선에 보낸 글에서 “조선국 일대의 도로에 있는驛館은 옛 풍속에 젖어 있어 흔히 여인이 答應한다고 한다. 그 나라는 본디 예의를 지킨다는 것을 잘 아는데, 이 일은 혐의스러운 데에 관계된다<sup>30)</sup>”고 하여 여인의 侍從과 女樂을 물리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당시 공용경의 행위에 대해 조선의 신료들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sup>31)</sup>, 명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던 공용경에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조선 사행 이전 유사했던 동월과 공용경에 대한 기대가 실제 사행을 겪으면서 상반된 평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행 이후, 즉 명나라 귀국 이후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이와

29) 『朝鮮王朝實錄』中宗 34年 4月 15日, “前則天使時所用之物, 無持者, 故修補用之, 龔·吳時, 多所持去, 故今天使時, 或多改備矣.”

30) 『朝鮮王朝實錄』中宗 32年 2月 8日, “及訪得朝鮮國一帶, 道路驛館, 舊俗相洽, 多用婦人答應. 固知本國, 素遵禮義, 而此事不無有涉嫌疑.”

31) 『朝鮮王朝實錄』中宗 32年 3月 14日, “至於呼妓秉燭, 託以書字, 翫狎自肆, 坐亦不恭. 恐終有褻瀆莫大之變也. …… 其命妓秉燭事, 予亦以爲未便, 而勉行耳. …… 今觀天使所爲之事, 多有悖戾, 莫如接之以禮而已. 女樂之用, 只爲成樂, 而以至秉燭, 又令亂舞. 若此不已, 終致非常之事. 華使雖當款待, 只行享禮而已, 不須更致縈縷也. …… 臣非不知, 自上勉而從之也, 但雜亂無序, 至於如此, 而尙無論啓者, 則謂我國有人乎. 以今觀之, 輕肆如此者, 亦知我國之無人也. …… 一從其所爲, 則謂我國有人乎. 狎翫妓生等事, 皆不忍見. 豈可以詔使之言, 而一從其非禮之事乎. 請以禮待之.”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이 글에서 살펴볼 세 번째 단계인 사행 이후 명나라에서의 행동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두 번째 단계에서 보여준 동월과 공용경에 대한 평가와 상당 부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난번 董越·王敞이 중국 조정으로 돌아와 殿下께서 賢主이심을 크게 칭송하였사오며, 또 許琮을 어진 재상이라고 칭도하였습니다<sup>32)</sup>.

정사가 신에게 말하기를, “董大人이 나에게 부탁하기를, ‘나와 許吏部는 情義가 깊어서 마음속의 일을 터놓고 다 말하는데, 그대가 가거든 나를 위해 안부를 전해 주시오.’ 하였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대인께서는 우리나라의 사신이 갈 때마다 우리 殿下의起居를 먼저 물으시고 다음에 나의 안부를 묻는다고 하니, 감격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sup>33)</sup>.”

노공필이 또다시 중국 사신 董越이 지은 『朝鮮賦』를 올리면서 말하기를, “上使가 신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董大人이 許吏部에게 기증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sup>34)</sup>다.”

王敞과 董越이 앞줄에 앉았는데, 비록 황제 앞이라 감히 사사로이 성의를 표시하지는 못했지만 신 등을 돌아보며 매우 은근한 정을 보였습니다<sup>35)</sup>.

32) 『朝鮮王朝實錄』成宗 19年 8月 24日, “日者董越·王敞還朝, 盛稱殿下爲賢主, 且稱許琮爲賢宰相.”

33) 『朝鮮王朝實錄』成宗 23年 5月 30日, “正使謂臣曰; ‘董大人囑余云: ‘我與許吏部, 情意深重, 說盡心事, 君去善爲我存問’ 臣答曰; ‘董大人, 每本國使臣之往, 先問我殿下起居, 次及於我, 不勝感激.’”

34) 『朝鮮王朝實錄』成宗 23年 6月 23日, “公弼又進天使董越所撰『朝鮮賦』, 啓曰; ‘上使贈臣云, 此董大人所寄許吏部也.’”

35) 『朝鮮王朝實錄』燕山君 8年 3月 24日, “王敞·董越坐前行, 雖以皇帝前, 不敢私款, 顧見臣等, 頗有殷勤之意.”

성종조 때 王敞과 董越의 일을 신이 친히 보았는데, 그들은 성종에게 심복 해서, 임금에 있어서도 신하가 없다는 말까지 하고, 遠接使 許琮과 서로 마음이 맞아서 매양 許吏曹라고 일컬었는데, 그가 중국 조정에 돌아가고 나서는 成廟 및 허종에 대하여서 한 번도 서로 묻는 일이 없었으니, 그 마음이 어찌 人臣의 의리에 사사로이 사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sup>36)</sup>.

인용한 글들은 동월이 명나라에 귀국한 후 조선과 조선의 인물에 대해 평가한 내용과 명나라를 찾은 조선의 사신을 접하고 한 행동에 대해 서술해 놓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동월의 조선 평가나 조선 인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고 보인다. 특히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成宗과 遠接使 許琮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했고, 그 평가 내용을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밝혔다고 생각된다. 조선 사행 이후 조선에 대한 동월의 우호적인 태도는 燕山君 8年 3月 24日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허종과의 교분과 우호에 관한 내용은 노공필을 통해 허종에게 전해진 『조선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돌아켜 보아야 할 대목은 인용한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인용한 글과 배치되기도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당시 조선에서는 동월이 조선 사행 기간 동안 성종과 허종에게 상당한 호감을 표현하였지만 명나라로 돌아가서는 조선에서 그렇게 가까이하고자 했던 성종과 허종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전해 온 적이 없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뒤집어 본다면 이 내용은 동월의 호감은 조선 사행 기간 동안 조선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일 뿐이라는 뜻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 버리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조선왕조실록』 뿐만 아

36) 『朝鮮王朝實錄』中宗 34年 8月 27日, “成宗朝王敞·董越之事, 臣親見之矣. 心服成宗, 而至曰‘有君無臣.’與遠接使許琮相得, 每稱許吏曹, 而及其還朝後, 成廟及許琮處, 略不相問. 其心豈非以爲人臣, 義無私交而然歟.”

나라 한국과 중국의 여러 문헌들을 살펴볼 때 명나라 귀국 후 동월이 公·私의으로 조선과 조선의 인물에 대해 여러 차례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이 마지막 인용문만을 가지고 동월이 조선에 대해 느꼈던 호감을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라거나 가식적이고 표면적인 것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인용문이 동월의 朝鮮 認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詳論하기로 하고, 다음으로는 명나라 귀국 이후의 공용경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명나라 귀국 이후의 공용경에 대한 평가는 모두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1] 龔用卿이 중국 조정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말하기를 ‘朝鮮의 文物과 禮義法制가 중국과 다름이 없다.’고 극구 칭찬하였습니다. …… 예부 상서도 공천사의 말을 듣고 감탄해 마지아니하여, 우리나라 사신을 보고 칭찬하기를 ‘그대 나라의 문물과 예의 법제가 중국과 다름없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다.’ 하였고, 또 玉河館의 主事와 序班 등에게 주의시켜 조선 사람은 삼가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sup>37)</sup>.

천사 龔用卿과 吳希孟이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禮義의 나라라고 칭찬하며 권장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禮部에서 신들을 대우하는 것이 지난날과 달랐으며 유람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모두 유람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sup>38)</sup>.

37) 『朝鮮王朝實錄』中宗 32年 11月 3日, “龔用卿還中朝, 言我國之事於稠中曰: ‘朝鮮文物禮制, 無異於中華, 極口贊美. …… 禮部尙書亦聞龔天使之言, 而嘉嘆不已, 見我國使臣, 而褒美之曰: ‘聞爾國文物禮制, 無異中朝, 心甚嘉.’ 又戒玉河館主事及序班等, 以朝鮮之人, 慎勿忽待云.”

38) 『朝鮮王朝實錄』中宗 32年 12月 8日. “天使 龔用卿·吳希孟之還朝, 褒將我國以禮義之邦. 以此禮部待臣等, 異於前時, 欲遊觀處, 皆許遊焉.”

龔用卿이 우리나라의 예의를 몹시 칭찬하였으므로 중국 조정의 縉紳들도 모두 알고 있으니, 비록 분영을 하게 하여도 다시 말한다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sup>39)</sup>.

조정에서 동국을 특별히 후히 생각하여 다른 藩邦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낸 것입니다. 또 龔·吳 두 선생도 국왕이 현명하다고 크게 칭찬하였습니다<sup>40)</sup>.

중국 사신 龔·吳·華·薛이 모두 우리나라가 禮義를 안다는 뜻으로 황제 앞에서 아뢰었기 때문에 중국 조정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반드시 오랑캐라고 하더니 지금은 사신이라고 했습니다<sup>41)</sup>.

인용한 [1]은 명나라 귀국 이후 공용경이 했던 조선 평가의 내용이다. 이 글을 보면 공용경이 조선을 문화·예의·법도의 국가로, 다른 藩邦과 다른 中華에 버금가는 국가로 인지하고 공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비록 조선을 중화 그 자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言動은 조선을 명나라에 근접한 국가로 만들었고, 명나라 관료들의 朝鮮觀을 교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 점에서 귀국 후 조선에 대한 공용경의 언동을 동월과 비교해 보면 공용경의 언동이 동월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분명했다고 할 수 있다.

39) 『朝鮮王朝實錄』中宗 34年 3月 3日, “龔用卿盛稱我國之禮義, 中朝縉紳, 皆知之. 雖令分迎, 更言之, 則未必不從.”

40) 『朝鮮王朝實錄』中宗 34年 4月 10日, “朝廷特厚東國, 不比他藩, 故差遣俺等爾. 且龔·吳兩先生, 盛稱國王賢明.”

41) 『朝鮮王朝實錄』中宗 34年 8月 24日, “且天使等[龔·吳·華·薛]皆以我國知禮義之意, 達之於皇帝前, 故中朝之人, 前稱我國人, 必曰夷人, 今則稱爲使臣也.”

[2] 다음 入奏하였는데, 우리나라를 褒獎하면서 ‘조정의 使命을 존경하니, 중국을 사모하는 뜻이 지극하다. 서책은 金帛과는 같지 않으니 전하여 주게 하자.’고 아뢰니, 황제가 그 주달을 허가하였고 예부가 사람을 시켜 전달해 왔습니다. 11월 18일에 공용경과 오희맹 등이 會同館에 이르러 신들을 부르기에 가서 만나본 다음에야 비로소 2인이 모두 그 책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尺牘 2통을 신에게 주었으니, 전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sup>42)</sup>.

중국 사신 龔·薛·華가 세 사신에게 음식과 일용 잡물을 보냈습니다. 공·설 두 사신은 두 번이나 보러 왔으며, 공 사신은 예부의 主客郎中 許礪에게 ‘조선 사람은 常例로 대접해서는 안 되고 또 매우 정결한 사람들이니 더러운 館所에서 거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직접 가서 청소하는 것이 옳다.’ 했으므로 허논이 직접 와서 세 사신을 찾아보고 관소를 청소하여 거처하도록 했습니다<sup>43)</sup>.

공 사신이 예부 낭중 허논에게 ‘조선 사신이 병이 나서 속히 출발하려 한다.’ 하고, 또 ‘방이 더러울 것이니 반드시 청결하게 해서 거처하게 하라.’ 하였으므로, 허논이 즉시 와서 보려고 하자 공 사신이 사람을 보내 와서 ‘허가 가서 보려고 한다.’ 했습니다. 신들이 의관을 정제하고 기다리니 과연 허논이 와서 ‘객소에 마땅찮은 것은 없는가?’ 하면서 침구까지 펴보는 등 위로가 극진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먼 나라를 위로하는 본의는 모두 공 사신의 힘이다.’ 하였습니다<sup>44)</sup>.

42) 『朝鮮王朝實錄』中宗 33年 2月 22日, “因而入奏, 褒獎我國曰; ‘尊敬朝廷使命, 其慕華之意至矣. 書冊非如金帛, 請使傳授. 皇帝可其奏, 禮部使人傳授.’ 至十一月十八日, 龔用卿·吳希孟等, 到會同館, 使招臣等往見, 然後始知二人, 皆受其冊也. 因以尺牘二度授臣, 卽所齎來書也.”

43) 『朝鮮王朝實錄』中宗 34年 12月 6日, “龔·薛·華天使, 各送下程于三使. 龔·薛兩度來見. 龔天使言于禮部主客郎中許礪曰; ‘朝鮮人, 不可以常例待之. 亦甚淨潔之人, 館所不可污穢以處之, 親往修掃可也,’ 許礪親來見三使, 修掃館所以處之.”

44) 『朝鮮王朝實錄』中宗 34年 12月 30日, “龔使言于禮部郎中許礪曰; ‘朝鮮使臣, 得病欲速出, 且房舍, 亦必汚陋, 須潔淨修掃以處之可也,’ 許礪卽欲來見. 龔使使人來

인용한 [2]는 명나라 귀국 이후 명나라를 찾은 조선 사신에 대한 공용경의 대응에 관한 부분이다. 이 내용을 보면 공용경은 명나라 귀국 이후로도 조선을 잊지 못하고, 조선 사행의 경험을 가슴 깊이 담아두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랬기 때문에 공용경은 조선에서 사신이 오자 직접 찾아가 만나 보고 선물과 서책·편지 등을 전했으며, 담당 관리에게 조선 사신들의 거처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 인용한 [2]에서 동월과 공용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귀국 이후의 동월에 대해 “중국 조정에 돌아가고 나서는 成廟 및 許琮에 대해서 한 번도 서로 묻는 일이 없었으니” 라고 한 것과 비교해 보면 공용경의 행동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선린 교류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용경의 행동은 동월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을 다녀간 명나라 사신들 중에서도 특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공·오 양사가 여러 번 시와 서간을 정사룡에게 보내왔다. 전일 성절사가 갔을 때에 양사가 사룡의 회답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다. …… 공·오 두 천사가 번번이 우리나라의 赴京使臣을 만나면 정사룡에게 시를 지어 부치면서 여러 번 성의를 보였습니다<sup>45)</sup>.

조종조로부터 반정 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내왕한 천사가 비록 많으나 돌아간 뒤에는 전혀 안부도 묻는 일이 없었는데, 공용경·오희맹 등은 돌아간 뒤에 안부를 묻는 일이 계속되어 한갓 나에게만 그치지 않고 아래로 朝臣에 미쳐 그 뜻이 간곡하다<sup>46)</sup>.

曰; ‘許將往見矣.’ 臣等衣服冠而待, 許論果來慰曰; ‘客舍無乃齟齬耶.’ 至於寢具, 亦皆披見, 慰勞備至. 乃曰; ‘此綏遠之意, 皆龔天使之力也.’

45) 『朝鮮王朝實錄』中宗 33年 11月 26日, “龔·吳兩使, 累寄詩簡于鄭士龍矣. 前日聖節使之行, 兩使以不見士龍之答爲怪云 …… 龔·吳兩天使, 每遇赴京使臣, 於鄭士龍處, 製詩以寄, 屢致款意.”

인용한 [3]은 명나라 귀국 이후 공용경이 지속적으로 조선에 관심을 보였으며 조선의 인사들과 交遊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용경은 명나라를 찾은 조선 사신들에게 조선 임금의 안부를 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행에서 원접사를 담당했던 刑曹判書 鄭士龍과 조선의 朝臣들에 대한 안부를 지속적으로 물었다. 공용경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당대 사신의 기본적인 사행원칙 즉, ‘人臣無外交’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신무외교’란 『禮記』에 나오는 말로 春秋時代 列國 간의 교류에서 사신으로 간 신하가 상대국의 제후를 사적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sup>47)</sup>을 말하는데, 이 원칙이 명나라 때까지 이어져 당대 조선으로 사신을 온 명나라의 사신들은 주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와 조선 국왕의 의사가 표현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는 임무만을 수행하였다. ‘인신무외교’ 원칙에 따른다면 공용경이 조선의 임금이나 신료와 개인적인 교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용경은 이 문제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동월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으로 사행 왔던 여타의 다른 사신들과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드러내었다.

[4] 이제 龔使臣이 한 일을 보니, 진실로 우연히 한 것이 아니어서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그의 집으로 가서 문안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궐정이나 館所에 오면 전하가 大人의 편지를 받고 무척 고마워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sup>48)</sup>.

46) 『朝鮮王朝實錄』中宗 33年 11月 28日, “但自祖宗朝, 至反正後, 天使之來本國者雖多, 還歸之後, 頓無相問之意, 而龔用卿·吳希孟等, 則入歸後, 存問相繼, 非徒於予, 下逮朝臣, 其意繇繇.”

47)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 서면호 사건에서 신미양요까지』, 역사비평사, 2005, p.285.

48) 『朝鮮王朝實錄』中宗 34年 10月 12日, “今見龔天使所爲之事, 實非偶然, 而可謂有信人也. 往其家而問安, 則不可也, 若於闕庭, 或於館所來到, 則殿下承大人記問, 多

공 사신이 힘쓴 것이 적지 않고, 또 늘 館所에 찾아 왔으니 사례품을 각별히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말이 華와 薛은 별로 힘쓴 흔적은 없으나, 말이나 기색에서 스스로 큰 공이 있었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공 사신에게만 사례품을 보낸다면 중국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걸핏하면 시기심을 가지니, 한결 같이 사례품을 보내되 공에게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 사신의 공이 많으니 진실로 특별히 예물을 보내어 사례함이 마땅합니다. 화·설 두 사신도 비록 공은 없는 듯하나 직접 상의 面敎를 받은 자들이니 힘쓴 흔적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sup>49)</sup>.

인용한 [4]는 공용경에 대한 조선의 최종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평가는 조선 사행 이후 명나라에 귀국한 공용경이 당대 조선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宗系辨誣의 수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종계변무는 명나라에 태조 李成桂의 잘못 기록된 世系를 시정해달라고 주청한 일을 말한다. 중국 『대명회전』의 『朝鮮國條』에 “이성계는 李仁任의 후손이고, 이인임과 그의 아들 丹(이성계)이 홍무 6년에서 28년까지 4명의 왕을 시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宗系문제는 조선왕조의 합법성과 왕권확립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은 개국 이후 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명회전』은 함부로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조선의 노력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다급해진 조선에서는 명나라에 수차례의 종계변무 주청사를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으로 사신 온 명나라의 사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인용한 [4]의 글을 통해 보듯이

謝之意，言之可也。”

49) 『朝鮮王朝實錄』中宗 35年 1月 6日, “龔使之用力不小, 而又每來見於館所, 人情物, 當各別送之, 而衆議以爲, 華·薛雖無用力之跡, 多示以用力之辭色, 龔處獨送, 則中原人, 小事輒生猜忌, 當一樣送之, 而加送龔處可也. …… 龔使用力爲多, 固宜別致禮幣以謝. 華·薛雖若無功, 親承面敎, 雖不見用力之迹, 亦不可以爲無功.”

명나라로 돌아간 사신 중 조선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성의와 노력을 보여 준 인물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명나라 귀국 이후 공용경이 보여준 조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당대 조선으로 사신 온 명나라 사신 중에서도 특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공용경의 조선 인식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IV. 朝鮮認識 · 朝鮮觀의 層次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동월과 공용경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조선 사행 기간과 명나라 귀국 이후 공용경의 행동이다. 동월의 경우 조선 사행 이전 조선에서 가졌던 기대나 예측이 조선 사행 기간 동안 그대로 이어졌고, 그 평가는 다시 명나라 귀국 후까지 이어졌다. 동월에 대한 조선의 평가는 일정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공용경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인 변화를 보인다.

사행 이전 공용경에 대한 조선의 기대는 결코 동월보다 낮지 않았다. 조선 내에서 확인하고 탐색한 공용경에 대한 중국 내의 평가가 이와 같은 기대를 심어준 것이다. 그런데, 사행 기간 공용경은 조선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다양한 행동을 했다. 공용경에 대한 평가가 한없이 추락하게 된 것이다<sup>50)</sup>. 공용경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의 변화는 그의 네 가지 행동에 기인한 것이다. 첫 번째는 앞서서도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한 나라의 국왕에 대한 무례하고 거만한 행동이다. 이 행동에 대해 공용경의 가식 없고 아첨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낭만적이며 호방한 성격 때문이라고 보기도

50) 공용경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권인용, 『16世紀 中國使臣의 朝鮮認識』,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2005, pp.65-77에 잘 나와 있다.

하는데<sup>51)</sup>, 중종에 대한 공용경의 행동에 대한 조선의 평가가 이렇게 부정적이 된 것은 경희루 연회에서 한 그의 행동에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용경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두 번째 이유는 조선의 謝禮物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그가 데리고 온 頭目들의 행동이다. 공용경이 청렴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조선에서 주는 사례물을 하나도 사양하지 않고 모두 받았다. 그는 90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頭目을 데리고 조선에 왔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돌아갈 때 이들 대부분이 조선에서 비치해 준 물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까지 했다. 탐학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공용경을 청렴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진다.

세 번째 이유는 유흥과 여색을 밝히는 모습이다. 이 부분은 儒家的 道德觀에 반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공용경을 비판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실상 공용경이 조선에 도착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용경은 조선에 도착한 이후 일정을 상당히 지체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람 때문<sup>52)</sup>이었다. 공용경은 한양으로 오는 도중 평양에 이르러 대동강에서 樓船을 타고 挾船에 기녀를 태운 뒤 부벽루까지 뱃놀이를 하였고, 평양의 연회에서 하루를 더 머물며 유람하기를 요구<sup>53)</sup>하기도 했다. 공용경이 자유롭고 낭만적이며 호방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선에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네 번째 이유는 禮制의 수정 요구이다. 동월 역시 迎詔 儀禮를 수정하여

51) 胡旭艷, 『龔用卿의 조선 인식과 외교 활동』,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28-34.

52) 『朝鮮王朝實錄』中宗 32年 11月 1日 條, 中宗 34年 1月 27日 條, 中宗 34年 2月 6日 條.

53) 『朝鮮王朝實錄』中宗 32年 4月 3日 條.

冊封-朝貢 관계를 굳건히 하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동월은 조선에 조서와 칙서를 각기 따로 맞이할 것과 조서를 맞이할 때 국왕이 輦을 타지 말고 말을 탈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켰고, 이후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공용경은 크게 세 가지의 영조 의례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첫째는 국왕이 교외로 나와 조서를 맞이할 때 五拜三叩頭의 예를 행할 것, 둘째는 교외에서 생원들이 나와 조서를 영접할 것, 셋째는 국왕이 베푸는 연회와 세자가 베푸는 연회의 예를 구분할 것이었다. 이 요구는 동월의 요구보다 훨씬 더 과한 것이어서 조선 조정안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공용경의 요구와 같이 관철되었고, 공용경은 자신의 『사조선록』에 그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조선 사행 기간 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공용경은 명나라 귀국 이후 조선의 국왕과 신료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이 시기 공용경이 받았던 호평은 동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었다. 명나라 귀국 이후 공용경이 받게 된 호평은 그가 조선의 국왕과 신료들에게 했던 약속과 조선 문사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자 노력했으며, 그러한 마음을 중국을 찾은 조선의 사신들에게 숨김없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동월과 공용경 모두 翰林의 職에 있어 先帝의 實錄<sup>54)</sup>과 『大明會典』의 修撰<sup>55)</sup>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들 모두 조선의 사정과 요구가 實錄과 『大明會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러 기록으로 보아 공용경은 조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이지만, 공용경과 달리 동월이 명나라 귀국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공용경은 조선 사행 기간 동안 조선의 신료들에게 약속했던 것<sup>56)</sup>과 같이

54) 『朝鮮王朝實錄』成宗 19年 3月 5日 條.

55) 『朝鮮王朝實錄』中宗 32年 3月 14日 條.

56) 『朝鮮王朝實錄』中宗 32年 4月 3日 條.

조선의 사신이 명나라를 찾아오자 이들을 직접 찾아 교분을 나누었으며, 조선의 지인들과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이런 점들이 사행 기간 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공용경을 호평의 극점에 두게 만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월과 공용경의 행동과 이들에 대한 조선의 평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또, 사행 기간 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공용경은 왜 귀국 이후 조선의 입장에서 서서 조선의 사정과 요구가 중국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으며, 조선의 인사들과 교분을 유지하고자 했는가? 사행 기간 호평을 받았던 동월은 왜 귀국 이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가?

동월과 공용경 모두 중화주의에 기반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조선을 바라보고 조선의 풍경과 풍속을 판단하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시각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유지하여, 있는 그대로 조선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식은 결코 객관적일 수도 親朝鮮적인 것일 수도 없었다. 그들이 조선을 예의와 법도의 나라라고 평가한 것은 조선의 예의와 법도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 조선의 예의와 법도가 지니는 중국과의 유사성, 혹은 중화의 遺風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조선 사행 기록에서, 또 귀국 이후 여러 곳에서 조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가한 것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기록과 언급은 조선 문화에 대한 긍정과 조선의 독자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 오히려 조선에 남아있는 중화의 유풍이 주는 권계와 귀감, 전통적 冊封-朝貢 관계의 확립을 통한 중세적 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동월과 공용경의 조선관, 조선 인식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조선 인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월의 경우 조선에서 일정한 평가를 유지하였는

데, 이것은 동월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 없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월에게 조선은 夷狄 중 상대적으로 문명화된 국가였고, 중화의 유풍이 남아 있어서 후대의 권계와 귀감이 될 수 있으며, 충심을 다해 중국을 섬기는 나라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월은 조선을 후히 대하는 중국의 성의를 조선에 보여 주어, 이를 바탕으로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고정시키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공용경의 경우 조선으로부터 받은 평가가 상당한 진폭을 보이는데, 이는 그의 인식과 행동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공용경의 『사조선록』 「서문」을 보면 공용경은 사행 이전 조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 거의 없었고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sup>57)</sup>고 했지만, 공용경 스스로 중종에게 “모든 州·府·郡·縣의 관작·제도와 풍속, 산천의 명승지를 하나하나 써 주시기 바랍니다. 『續朝鮮賦』를 짓고 싶습니다. …… 董先生이 일찍이 『조선부』를 지었습니다마는, 단지 서쪽 지방 일대의 것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온 사방의 것을 다 알고 싶습니다. 일찍이 옛 역사를 통하여 고려의 일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時王의 일은 세대에 따라 禮樂과 文物을 잘 조정하였으므로 찬란하게 잘 갖추어 지기가 이때와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sup>58)</sup>”라고 했다는 점에서 공용경은 조선 사행 이전 이미 조선의 사정에 대해 적지 않게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7) 龔用卿, 『使朝鮮錄』, “初得是命, 詢朝鮮之故事于在廷諸君子, 在廷諸君子皆曰; 無有也. 東來至遼陽, 考昔日之典故于有司, 有司莫以告, 皆曰; 無有也, 相顧漠漠, 然無所於考也. 況夫人不常往, 禮不常行. 故儀不常得, 欲考其故, 不亦難乎.”

58) 『朝鮮王朝實錄』中宗 32年 3月 15日, “凡州府郡縣·官爵制度·風俗·山川形勝, 請一一書惠, 欲作續朝鮮賦也. …… 董先生曾作朝鮮賦, 然只記其西面一路而已. 俺則欲舉四方, 而知之也. 曾因古史, 粗知高麗之事, 然時王之事, 與世推移, 禮樂文物, 燦然極備, 莫此時若也.”

결국 공용경의 조선 사행은 조선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지식의 확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용경은 조선을 점차 邊方에서 중앙으로, 夷狄에서 中華 주변으로 옮겨놓게 되었다고 보인다. 조선 사행 동안 행한 공용경의 행동과 그에 대한 조선의 비판은 그가 지니고 있었던 개인적인 성격과 조선에 대한 인식의 미확정이라는 두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었고, 명나라 귀국 이후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우호적인 행동은 공용경의 조선 인식이 하나의 방향으로 확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이미 밝힌 것과 같이 공용경의 이러한 조선 인식이 조선의 독자적 가치와 객관적 위상을 인정한 것이라고까지 확대해서 보기는 어렵다. 공용경이 조선을 어떻게 평가했던 조선은 중화의 藩邦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동월의 조선 인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범주 안에 있으면서 조선을 夷狄 중 상대적인 文化國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공용경의 조선 인식은 夷狄의 하나에서 점차 中華에 근접한 나라로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 V. 정리하면서

董越과 龔用卿은 朝鮮을 찾았던 明나라의 使臣이었다. 이들은 한림원 소속의 문인 관료였다는 점과 귀국 후 조선 사행에 관한 저술을 남겼으며, 조선을 예의와 문화의 나라로 칭양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 이들의 사행 과정과 이들이 남긴 사행 기록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조선 인식 역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상 동월과 공용경의 조선 인식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만큼 커 보인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선 인식의 유사함은 이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대 조선을 찾았던 명나라 사신들 대부분의 조선 인식은 대체로 유사해 보인다.

동월과 공용경은 당대 문명의 중심이었던 中華 즉 명나라의 관료문인으로, 중화 문명을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주변 이민족 국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는 문화적 우월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아무리 조선을 文化와 禮儀의 나라라고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은 중화가 될 수 없었고, 이들이 인정했던 조선의 문화와 예의는 조선 고유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식해 들어온, 조선에 정착된 중국의 예의와 문화였다.

그러나 동월과 공용경의 조선 인식이 아무리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아서는 곤란하고, 같은 점에서 조선 당대 조선을 찾았던 명나라 사신들 각각의 조선 인식, 혹은 당대 명나라 지식인들의 조선 인식 역시 일정한 편차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동월과 공용경이 지녔던 조선 인식의 층차는 조선에 대해 이들이 남긴 글과 이들에 대해 기록해 놓은 조선의 기록 검토를 통해 가능하지만, 현재 이들이 남긴 글 속에 묘사된 조선은 유사한 양상을 지닌다. 따라서 동월과 공용경의 조선 인식에 대한 비교는 이들에 대해 기록해 놓은 조선의 기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조선왕조실록』 속에 기록되어 있는 동월과 공용경은 같으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사행 과정과 귀국 이후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보았을 때 동월보다 공용경에 대한 평가의 진폭이 훨씬 더 크다. 공용경에 대한 평가의 진폭은 그의 행동에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행동의 변화는 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보인다.

동월의 경우 조선을 夷狄 중 상대적으로 문명화된 국가이고, 중화의 유풍이 남아 있어서 후대의 권계와 귀감이 될 수 있으며, 충심을 다해 중국을

섬기는 나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조선을 후히 대하는 중국의 성의를 조선에 보여 주어 조선과 중화의 관계를 고정시키고자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공용경의 경우 조선 사행을 통해 조선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을 邊方에서 중앙 가까이로, 夷狄에서 中華 가까이로 옮겨놓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용경은 명나라 귀국 이후 조선에 대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동월과 공용경의 조선 인식이 보여주는 층차는 동월과 공용경 뿐만 아니라 당대 중국의 지식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차이점이 당대 중국의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조선 인식의 차이거나 조선에 대한 평가의 相異함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 차이는 이들 개인의 조선 인식에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간극에 대한 파악은 당대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조선 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이렇게 당대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조선 인식을 살펴보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시도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龔用卿, 『使朝鮮錄』  
董越, 『朝鮮賦』·『使東日錄』·『朝鮮雜志』  
『江西通志』  
『大清一統志』  
『明一統志』  
『福建通志』  
『朝鮮王朝實錄』  
『欽定四庫全書總目』

### 2. 논문 및 단행본

- 姜陽, 『朝鮮前期 朝明 使行外交와 交通路』,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6.  
권인용, 『16世紀 中國使臣의 朝鮮認識』,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2005, pp.65-77.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 셔먼호 사건에서 신미양요까지』, 역사비평사, 2005, p.285.  
김은정, 『朝鮮初期 事大外交와 『皇華集』 刊行에 대하여』, 『제9회 研究發表大會 資料集』, 韓國漢詩學會, 1999, p.123.  
金根廷, 『庚午本 『皇華集』 편찬경위와 詩文酬唱의 의미』, 『韓國漢詩研究』 7, 韓國漢詩學會, 1999, p.310.  
金已花, 『『皇華集』의 編纂과 板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7.  
김한규, 『사조선록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p.212., pp.244-245.  
朴元燾,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2002, pp.291-296.  
胡旭艷, 『龔用卿의 조선 인식과 외교 활동』,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28-34.

**Abstract**

Chinese Envoys' Understandings on Joseon Examined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Dong Weol and Gong Yong-gyeong

Yoon, Jae-Hwan

The direct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Dong Weol and Gong Yong-gyeong, gaps between their understandings on Joseon and the meanings of the gaps, but the wider goal is to provide clues to examine the aspects of understandings on Joseon by literati of Ming dynasty of the time and the objectified and relative appearances of Joseon from the perspectives of others.

Both Dong Weol and Gong Yong-gyeong in common were Ming dynasty's envoys visiting Joseon, were literati-bureaucrats assigned to Hanrimweon(翰林院), wrote on their envoy trips to Joseon, and praised Joseon as a nation of manners and culture. Also, the processes of their envoy trips and their writings on them look similar to each other. In those senses it can be said that their understandings on Joseon are similar,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y are the same.

The records of Dong Weol and those of Gong Yong-gyeong in Joseon wangjorilrok(『朝鮮王朝實錄』) look similar but different as Gong Yong-gyeong has a broader amplitude than Dong Weol. Although it is hard to be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was the difference among understandings of Joseon by Chinese literati of the time, the difference at least shows that there are gaps between those individuals' understandings on Joseon; and the recognition about the gaps can be a method to show the various understandings on Joseon by Chinese literati of the time. This paper can have the meaning for suggesting a way to examine the various understandings on Joseon by Chinese literati of the time.

Key Word : Dong Weol, Gong Yong-gyeong, Joseonbu, Sajoseonrok, Joseon, Ming  
Dynasty, Chinese envoy, understanding on Joseon

윤재환

소속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31) 8005-3019

전자우편 : inse-yoon@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

